

미켈란젤로의 캠피돌리오 언덕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 석 만

(금오공대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 : 르네상스, 미켈란젤로, 캠피돌리오 언덕, 광장, 궁전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가,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는 마지막의 약 30년 동안은 주로 건축작업에 전념하면서 활동을 하였다. 미켈란젤로의 많은 세속적인 건축작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은 1537년에서 1539년에 걸쳐 이루어진 캠피돌리오 언덕에 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캠피돌리오 언덕의 계획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의 원래계획에 의하여 실현되었다.

캠피돌리오 언덕은 로마의 7개 언덕 중에서 가장 작은 언덕에도 불구하고¹⁾,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으로서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장소이었다. 캠피돌리오 언덕은 3개의 건물이 중앙의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3면이 둘러싸여 있으며, 전면은 개방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언덕은 도로로부터 진입계단, 광장, 세나토리오 Senatorio궁전(원로원), 콘세르바토리 Conservatori궁전(호민관)과 누오보 Nuovo궁전(카피톨린 미술관)이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계를 가지고 구성되었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캠피돌리오 언덕의 광장과 건물들의 구성요소 및 체계를 연구와 분석을 통해, 진입계단과 광장 및 건물들의 배치계획과 그러한 공간과 형태의 구성요소 및 체계를 중심으로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광장의 형성과정, 사다리꼴 형태의 광장과 내부에 디자인된 타원형, 타원형 내부 별모양의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어떠한 관계와 특성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 본 연구는 2007년도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로마의 도시 중심지에 산재해 있는 7개의 언덕은 캠피돌리오 Campidoglio, 팔라티노 Palatino, 아벤티노 Aventino, 카에리오 Caelio, 에스퀴리노 Esquilino, 비미니나레 Viminale, 퀴리나레 Quirinale 이며, 그 가운데 로마의 발생지이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언덕은 캠피돌리오 이다. L. F. dell'Orto, Roma Antica, Arno e

Tevere, 1982, p. 6.

1-2. 연구범위 및 방법

캄피돌리오 언덕의 계획은 단순히 주어진 기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시 르네상스시대에 도시의 광장과 건물계획을 위한 새로운 개념에서의 구성체계와 요소로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념에서 도로로부터 광장으로의 진입계단과 광장, 그리고 광장을 구성하기 위해 주위에 배치된 세나토리오 궁전,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캄피돌리오 언덕에 관한 참고문헌과 관련된 자료의 고찰, 배치계획에 대한 도해작업 및 사다리꼴 광장에 계획된 타원형과 내부의 디자인에 대한 도해작업,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미켈란젤로의 캄피돌리오 언덕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첫 번째는 연구의 대상인 캄피돌리오 언덕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캄피돌리오 언덕의 계획배경에 대하여 고찰한다. 두 번째는 캄피돌리오 언덕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인 진입계단, 광장, 광장 중심부분에 배치된 기마상, 세나토리오 궁전과 콘세르바토리 궁전 및 누오보 궁전에 대한 3개 건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배치계획에 대해 분석한다. 세 번째는 사다리꼴 형태의 광장계획을 분석하며, 네 번째는 광장 중심부분의 타원형과 내부에 장식된 기하학적인 별모양의 문양을 작도하여 디자인에 관한 도면분석 이후에, 디자인의 개념과 과정 및 특성을 고찰한다. 다섯 번째는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3개의 건물에 대한 정면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와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2. 본론

2-1. 캄피돌리오 언덕의 계획배경

캄피돌리오 언덕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발생 지이면서 로마의 7개 언덕 중에 가장 작은 언덕이었지만 고대 로마시대의 종교 중심지로서 가장 신성한 언덕이었으며, 정치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²⁾ 이러한 언덕은 로마에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언덕의 뒤편인 동쪽에는 로만 포럼 Roman Forum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언덕을 향한 주 접근로는 지금과는 반대쪽인 로만 포럼으로부터 급하게 경사진 계단으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캄피돌리오 언덕 좌측부분에는 도로로부터 경사가 급한 높은 계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1250년에 건축된 중세시대의 교회인 아라 코엘리의 성모 마리아 Santa Maria d'Ara Coeli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중세시대에 캄피돌리오 언덕은 몬테 카프리노 Monte Caprino로서 알려져 있었으며, 중세시대에도 로마의 행정적인 중심지로서 이용되었다. 캄피돌리오 언덕에서 가장 처음 세워진 건물은 세나토리오 궁전인데, 이러한 궁전은 1144년에 고대 로마시대의 문서보관소로 이용되었던 타브라리움 폐허의 상부에 축조되어 로마 시민정치에 중심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건물의 배치는 동쪽의 로만 포럼을 향하게 하지 않고, 반대로 로마의 서쪽방향에 도시 중심지를 향하게 하였다. 이후에는 1299

2) 캄피돌리오 언덕 남쪽에는 BC. 6C에 로마에서 가장 숭배를 받고 있었던 주피터 Jupiter신전이 있었으며, 북쪽 언덕에는 유노 Juno와 미네르바 Minerva신전과 조페국이 세워져 있었다. BC 4C 중엽에는 빌트우스 신전이 축조되었으며, 현재 캄피돌리오 언덕 부분에는 BC. 78년에 건축된 국가 문서보관소인 타브라리움 Tabularium이 있었다. J. S. Ackerman, *L'architettura di Michelangelo*, Einaudi, 1968, p. 50; L. Franchi dell'Orto, *Roma Antica, Arno e Tevere*, 1982, pp. 5, 11; 문수일, 미켈란젤로의 로마, 공간출판사, 1992, p. 64.

년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1398년에는 교황 보니파스 Boniface IX(재임기간 1389-1404)에 의해 로마 시청사로서의 체제를 기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확장하여 계획되었다. 그리고 콘세르바토리 궁전은 1450년에 교황 니콜라스 Nicolas V(재임기간 1447-1455)에 의해 축조되었다.³⁾ 이와 같이 캠피돌리오 언덕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연속되어 캠피돌리오 언덕 우측에 있는 콘세르바토리 궁전 뒤편에 로마 시청사 위치하여 로마시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태리에서 중세시대에 형성된 주요한 도시는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시대의 도시 중심지에 형성된 광장들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광장들은 캠피돌리오 언덕의 계획과 유사하게 르네상스시대에 많은 도시에 기념비적인 광장을 계획하기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특히, 르네상스시대 초기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광장계획은 이태리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피엔짜 Pienza, 우르비노 Urbino, 페라라 Ferrara, 코르테 마지오레 Corte Maggiore, 베네치아 Venezia, 비제바노 Vigevano와 같은 도시들의 새로운 요구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분적인 재계획 및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다.⁴⁾

처음에 캠피돌리오 언덕의 계획을 시작할 당시에는 세나토리오 궁전과 콘세르바토리 궁전이 있었는데, 궁전 전면에는 광장이 명확하

게 계획된 일정한 형태로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기마상 주변에는 바닥이 평탄하지 않은 작은 광장이 있었지만, 바닥포장은 안된 상태이었으며, 도시방향에서의 접근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⁵⁾ (그림 1)



<그림 1> 캠피돌리오 광장의 모습, 무명작가, 약 1554-1560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출처: G. C. Argan - B. Contardi, Michelangelo architetto, Electa, 1990, 그림 354)

실제로 지금의 캠피돌리오 언덕의 계획은 1539년에 미켈란젤로가 교황 파우루스 Paulus III세(재임기간 1534-1549)에게 원래 라테란 언덕에 있었던 로마시대 황제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relius(재임기간 AD 161-180)의 기마상을 캠피돌리오 언덕에 이전시키는 계획을 요청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⁶⁾

결과적으로, 캠피돌리오 언덕의 계획배경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3) P. Zucker, Town and Square, MIT, 1959, p.146; C. Norberg-Schultz,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Praeger, 1975, p. 271; Akinori Kato, Plazas of Southern Europe, Process Architecture Publishing Co., Ltd., 1990, p. 88; G. C. Argan - B. Contardi, Michelangelo architetto, Electa, 1990, p. 252; 문수일, Op. Cit., pp. 55-56.

4) J. S. Ackerman, Op. Cit., p. 50; Jacob Burckhardt, The Architecture of the Italian Renaissance(1867), Penguin Books, 1987, p.170; L. Murray, Michelangelo, Rusconi, 1988, pp. 175-176.

5) P. Zucker, Op. Cit., p. 146; J. S. Ackerman, Op. Cit., p. 53; L.H. Heydenreich-W.Lotz, Architecture in Italy 1400 to 1600, Penguin, 1974, p. 249; C. Norberg-Schultz, Op. Cit., p. 271; L. Murray, Op. Cit., pp. 173-174; Akinori Kato, Op. Cit., p. 88; 문수일, Op. Cit.,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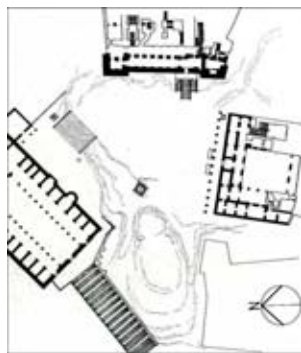
6) 한때는 AD 313년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마상으로 알려져 있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마상은 교황 파우루스 3세의 소유이었으며, 로마시대에 기마상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것이었다. J. S. Ackerman, Op. Cit., pp. 53, 55-56; L.H. Heydenreich-W.Lotz, Op. Cit.,p. 249; L. Murray, Op. Cit., p. 174; G. C. Argan - B. Contardi, Op. Cit., p. 252; 문수일, Op. Cit., p. 61; 비단트 클라센, 서양건축사, 심우갑-조희철 옮김, 대우출판사, 1995, p. 154.

첫 번째는 캄피돌리오 언덕에 도시방향의 서쪽 도로로부터의 진입부분과 세나토리오 궁전과 콘세르바토리 궁전의 입면을 당시 시대의 구성체계 및 요소로서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누오보 궁전 건물계획과 함께 형성되는 광장계획을 하기 위한 재정비 계획이었다.⁷⁾ 두 번째는 로마가 발생한 언덕이면서 로마시대의 정치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로마 중심부인 캄피돌리오 언덕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마상과 함께, 과거의 로마제국의 영광을 되돌리려는 작업을 계획함으로써 교황이 통치하는 새로운 로마의 장엄함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캄피돌리오 언덕의 서쪽방향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는 당시에 이미 계획과 공사가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었는데, 로마에서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이면서 종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와 대등한 계획을 하기 위함이었다.

2-2. 캄피돌리오 언덕의 배치계획

미켈란젤로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캄피돌리오 언덕의 모습은 현재의 광장과 건물의 배치와는 다르게 동쪽의 전면에는 기존의 중세시대의 건물인 세나토리오 궁전과 남쪽의 우측에는 콘세르바토리 궁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건물들은 서로 83°의 각도를 이루고 배치되어 있었다.⁸⁾ (그림 2)

미켈란젤로의 캄피돌리오 언덕에 관한 배치계획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 첫 번째는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그림 2> 캄피돌리오 언덕의 계획 이전의 모습
(출처: Akinori Kato, *Plazas of Southern Europe*, Process Architecture Publishing Co., 1990, p.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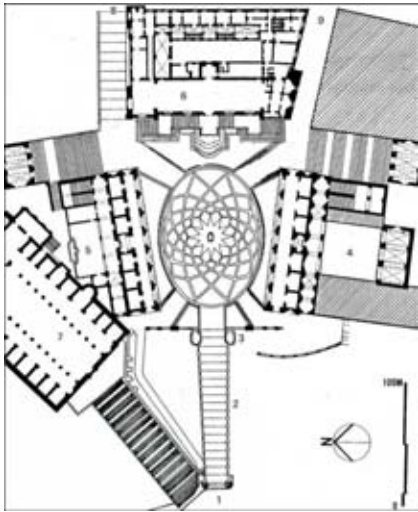
서로 마주보는 새로운 건물인 누오보 궁전을 같은 크기와 형태로서 기존의 세나토리오 궁전과 콘세르바토리 궁전의 배치에서의 같은 각도인 83°를 이루고 배치하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세나토리오 궁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광장과 경사진 계단의 동-서 방향의 장축(b-f)과 남-북 방향의 단축(d-e)의 중심축이 배치축이 되면서 서로 대칭으로 이루어졌다.⁹⁾ 그리고 세나토리오 궁전 모서리 a와 c가 배치축인 장축과 단축의 교차점인 O를 중심으로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의 정면 모서리 C와 D를 대각선 방향으로 서로 접하게 배치되었다. (그림 4) 따라서 캄피돌리오 언덕에 관한 배치계획은 중앙부분의 형성된 광장을 중심으로 광장과 건물이 균형을 이루면서 집중적으로 통합하여 구성되었다.¹⁰⁾

9) 장축에서는 계단과 세나토리오 궁전의 정면 출입구(b)가 일치되어 있으며, 단축에서는 좌측의 누오보 궁전과 우측의 콘세르바토리 궁전의 정면 출입구(d, e)가 서로 대칭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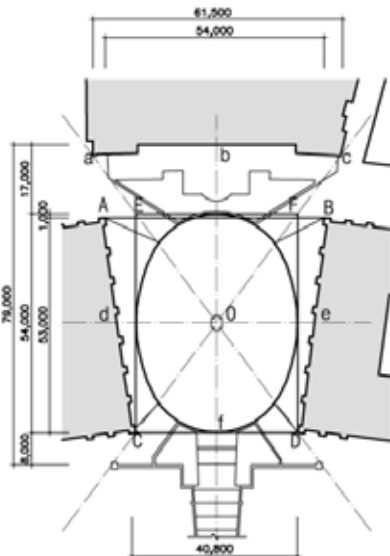
10) 캄피돌리오 언덕의 전체적인 배치의 축은 도로-계단-광장-궁전으로 연결되는 장축방향의 축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배치개념은 도로-전설-중정-건물내부의 구성체계로 되어 있는 로마시대의 도무스와 르네상스시대의 궁전의 구성체계와 유사하게 계획되었다. 따라서 캄피돌리오 언덕의 광장은 로마시대와 르네상스시대의 중정과 같이, 배치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중심적인 핵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장 주위에 건물의 배치계획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7) 교황 율리우스 Julius III(재임기간 1550-1555)부터 교황 피우스 Pius IV(재임기간 1559-1565) 때까지 캄피돌리오 언덕의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업은 세나토리오 궁전이 보수되었고, 기마상의 대좌 제작과 상이 세워졌으며, 광장 서쪽의 난간이 건설되었다. 문수일, *Op. Cit.*, pp. 63-64.

8) 1. 캄피돌리오 언덕의 계획배정의 내용 및 주) 3 참조.



<그림 3> 캠피도리오 언덕의 배치도
 1.도로 2.경사진 계단 3.카스트르, 폴록스 상 4.콘세르바토리 궁전 5.누오보 궁전 6.세나토리오 궁전 7.아라 코에리의 성모 마리아 교회 8-9.로만 포럼으로 가는 도로
 (출처: Akinori Kato, Plazas of Southern Europe, Process Architecture Publishing Co., 1990, p. 88)



<그림 4> 캠피도리오 언덕의 배치도에 대한 도해¹¹⁾ (저자 도해)

11) 캠피도리오 언덕에 관한 배치도의 도해를 위한 자료는 Comune di Roma, Atlante di Roma, Marsilio, 1991에서 캠피도리오 언덕부분에 대한 1/1000 도면을

두 번째는 3개의 건물에 의해 자연스럽게 광장의 공간영역을 한정시키면서 전면이 개방된 광장이 형성되었으며, 실제로 캠피도리오 언덕의 배치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장계획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세나토리오 궁전과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함께, 불확정된 비워진 공간에 누오보 궁전을 새롭게 배치하여 도시방향으로 열린 공간인 역사다리꼴 형태의 광장(acCD)이 계획되었으며, (그림 4, 참조) 벌어진 2개 건물과 광장에 의해 세나토리오 궁전의 정면이 보다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었다.¹²⁾ 그리고 광장의 전면인 서쪽부분은 도시방향으로 열어 놓으면서 난간에 의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계단 끝부분 양측에는 카스트르와 폴록스 신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로마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성 베드로 교회를 향해 개방시키는 계획이었다. 위와 같은 배치계획의 개념은 르네상스시대에 그려진 중앙부분에 원형 형태의 교회와 교회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같은 크기와 형태의 건물들이 대칭으로 배치된 이상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그림 5에서와 같이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세 번째는 세나토리오 궁전과 광장 그리고



<그림 5> 이상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그림, 무명작가, 15세기, 우르비노, 두칼레 궁전
 (출처: L. Benevolo, Storia dell'Architettura del Rinascimento Vol. I, L'edz, 1968, 그림 171)

중심으로 작업하였다.

12) 광장 주위에 배치된 건물과 같이, 로마시대 포럼 주위에는 공공건물들이 둘러싸여 있었으며, 특히 가장 중심적이고 시각적인 초점이 되는 위치에는 신전을 배치하였다. Vitruvius, 건축 10서, 오덕성 역, 기문당, 1987, 제5서, 제1장.

경사진계단에 의한 장축과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새롭게 배치된 누오보 궁전의 출입구에 의한 단축을 교차하는 시키는 광장 중심부분(O)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마상을 배치하였다. (그림 4) 새로운 광장구성의 중심부분에 기마상을 배치하는 것은 보다 확실하게 광장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켈란젤로는 기마상을 캄피돌리오 언덕계획에 구성요소로서 자신의 광장과 건물계획에 통합시켰다. 실제로 광장 중심부분에 기마상을 배치하는 개념은 이전의 광장에서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전통적인 개념에 의해 중앙부분을 비워두는 것과는 다르게 르네상스시대에 최초로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캄피돌리오 언덕의 광장에서는 광장의 일반적인 기능을 위한 계획보다는 오히려 기마상을 배치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무대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장으로의 진입부분은 도로로부터 광장의 서로 다른 레벨차를 완만하게 경사진 계단에 의한 새로운 접근성을 광장으로 유도하는 계획으로 이루어졌으며,¹³⁾ 또한 계단은 도시의 도로와 언덕을 결합시키는 요소로서의 기능을 위한 매개체로서 계획되었다. 이와 같은 계단은 1544년 미켈란젤로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이후에 지아코모 델라 포르타 Giacomo della Porta(1533-1602)에 의해 1578년에 축조되었다.¹⁴⁾ 특히, 계단의 형태는

13) 이러한 경사진 진입계단은 이태리어로 '돌계단이 있는 언덕길'이라고 번역되는 "Cordonata"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Graded Ramp"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계단은 사람이나, 말 혹은 마차들이 광장까지 안전하게 오르고 내려갈 수 있도록 20개의 넓은 디딤판(약 3.16m)과 낮은 철편(약 0.15m)으로 구성되었으며, 디딤판과 철편에 의해 형성되는 직각부분은 둔각으로 완만하게 처리하면서 디딤판도 약간 경사진 일반적인 계단과 경사의 중간 정도의 경사진 기울기로 계단이 형성되었다. 그림 3-4와 Comune di Roma, Op. Cit.,에서 캄피돌리오 언덕부분에 대한 1/1000 도면 참조.

14) P. Zucker, Op. Cit., p. 147; Akinori Kato, Op. Cit., p. 88.

도로로부터 시작하는 부분의 폭을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넓어지면서 광장의 도달하기 위한 계단 끝부분의 폭은 시작하는 부분보다 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의 형태는 광장의 역사다리꼴 형태와 같이 구성되어 역원근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¹⁵⁾ 한편, 캄피돌리오 광장과 주위의 건물들은 도로로부터 긴 경사진 계단을 따라 오르면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전개되어 보여지게 된다. (그림 6) 전면에 있는 3개의 건물로 둘러싸인 광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계단을 올라온 이후에 광장 입구에서 가능하다.¹⁶⁾



<그림 6> 계단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본 캄피돌리오 언덕의 모습

(출처: Akinori Kato, *Plazas of Southern Europe*, Process Architecture Publishing Co., 1990, p. 89),

15) 도로로부터 시작하는 부분의 폭은 약 9.0m이며, 계단 끝부분의 폭은 약 12.0m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상승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광장에서 계단을 내려다 보면 디딤판과 철편의 경계부분에 형성된 흰색의 대리석 마감부분만이 보이기 때문에 계단이라기 보다는 경사진 내리막길처럼 느끼게 된다.

16) 광장은 언덕 위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경사진 계단을 시작하는 지점부터 계단을 따라 올라가 광장 입구에 거의 도달하기 전까지는 광장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광장의 배경이 되는 세나토리오 궁전은 1층 부분은 높은 기단부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2개의 층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궁전의 정면을 도로에서의 진입하는 지점에서 보면, 기단부는 보이지가 않지만, 상부의 2개 층은 거의 완벽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나토리오 궁전이 계단 끝지점 혹은 광장의 전면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소는 광장 양측에 2개의 건물을 도로에서의 진입하는 지점에서 보면, 건물 정면이 보이지 않도록 배치되어 오히려 측면만 보이게 됨으로서 광장의 깊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7> 캠피돌리오 언덕과 주변의 모습, 템페스타, 1593년에 그려진 로마지도¹⁷⁾

(출처: Enciclopedia Europa, "Roma", Vol. IX, 1970)

이외에도 캠피돌리오 언덕계획의 배치개념은 인간이 몸통 주위로 2개의 팔과 다리, 그리고 코를 중심으로 두 눈이 중앙의 축에 의해 대칭으로 배치된 것과 같이, 미켈란젤로는 중앙부분에 형성되는 단일의 축에 의해 주위에 대칭적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캠피돌리오 언덕의 배치계획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구성요소로서 추상화하여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나토리오 궁전은 머리, 양측면의 두 궁전은 팔, 타원형은 몸통, 도로로부터 긴 경사진 계단은 다리에 해당되며, 그리고 타원형 속의 기마상 부분은 배꼽을 나타내었다.¹⁸⁾

미켈란젤로가 1564년에 죽은 이후에 1568년에 제작된 캠피돌리오 언덕의 전체적인 구

17) 템페스타 A. Tempesta에 의해 그려진 로마지도에서 캠피돌리오 언덕과 주변 부분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에서는 언덕의 좌측에는 전면 도로로부터 아라 코에리의 성모 마리아 교회를 올라갈 수 있는 경사진 높은 계단과 그러한 교회가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캠피돌리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면 도로로부터 넓은 경사진 계단형태와 계단 끝부분 양측에는 2개의 조각상이 보이며, 광장 중앙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마상이 세워져 있고, 기마상 주변에는 타원형 형태의 윤곽이 구성되어 있다. 광장 전면에는 세나토리오 궁전과 이중의 계단이 서로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콘세르바토리 궁전의 측면이 보이고 있다.

18) L. Murray, Op. Cit., pp. 173-174; 비난트 클라센, Op. Cit., p. 155.

성체계와 요소에 대한 에티엔느 듀페락 Etienne Dupe'rac의 판화 내용을 통해 당시의 미켈란젤로에 의한 캠피돌리오 언덕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의 그림과 현재의 완성된 계획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몇 개의 작은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일치하고 있다.¹⁹⁾ (그림 8)



<그림 8> 캠피돌리오 언덕의 미켈란젤로 계획, 에티엔느 듀페락의 판화, 1569년, 비엔나 알베르티나 미술관 소장

(출처: G. C. Argan - B. Contardi, Michelangelo architetto, Electa, 1990, 그림 362)

2-3. 사다리꼴 형태의 광장계획

미켈란젤로는 캠피돌리오 언덕계획을 위해 기존의 세나토리오 궁전과 콘세르바토리 궁전에 의해 처음부터 서로 83°의 각도를 이루고 있었던 배치를 변경하지 않았다. 사다리꼴 형태의 광장은 의도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나토리오 궁전을 중심으로 장축인 중심축에 의해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서로 대칭으로 맞은편에 새롭게 계획된 누오보 궁전에 의

19) 듀페락의 판화 내용과 현재의 캠피돌리오 언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경사진 계단을 상부 부분만이 그려져 있다. 두 번째는 누오보 궁전의 지붕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서 정면 위주의 모습이 표현되었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누오보 궁전을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대칭적인 구도로만 표현하기 위 함이었던 것 같다. 세 번째는 세나토리오 궁전 전면 중앙부분에 대칭으로 구성된 계단 상부부분에 포치가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았다. L.H. Heydenreich-W.Lotz, Op. Cit., p. 250; P. Murray, Architettura del Rinascimento, Electa, 1978, p. 110; L. Murray, Op. Cit., p. 177; 문수일, Op. Cit., p. 65.

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광장을 구성하고 있는 정면의 세나토리오 궁전은 광장의 무대장식적인 배경이 되면서, 양측면의 두 건물과 함께 광장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캄피돌리오 광장은 세나토리오 궁전의 정면으로부터 도시를 향해 외부방향으로 열려져 있으며, 내부방향으로는 세나토리오 궁전의 정면이 초점이 되어 닫혀져 있는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광장이 가장 이상적으로 공간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광장 자체의 기본적인 평면형태로서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장의 형태는 세나토리오 궁전의 정면 길이(a-c)는 장면이 되며,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서로 대칭으로 맞은편에 계획된 누오보 궁전 모서리부분 사이의 길이(C-D)는 단면이 되는 역사다리꼴 형태(acCD)로서 특징 있게 구성되었다.²⁰⁾ (그림 4) 이러한 광장은 르네상스시대에 원근법을 기본으로 기하학적인 구성에 의한 전형적인 형태와는 다르게 구성되었다. 그 이유는 광장 양측에 대칭으로 배치된 건물들이 진입부분 방향으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역사다리꼴 형태의 광장이 구성되었다.²¹⁾ 이

20) 사다리꼴 형태의 광장은 장면 약 61.5m, 단면 약 40.8m, 높이가 약 69m의 규모이며, 장면과 단면은 3:2의 비례체계로 구성되었다. 그림 4, 참조.

21) 광장은 세나토리오 궁전과 도시방향의 난간을 면하고 있는 서로 다른 쪽으로부터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계획되었다. 도시방향의 난간부분에서 세나토리오 궁전 방향을 바라보면, 투시도법에 의해서 광장의 가로선을 이루고 있는 양측면에 있는 건물이 서로 평행으로 보이게 되어 사다리꼴 형태의 광장이 사각형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시소점이 뒷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궁전과의 거리가 실제보다 근접하게 느껴지고 실제적인 궁전 건물의 폭보다 더 좁게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높이를 낮게 보일 뿐만 아니라, 광장도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면서 궁전으로의 진입이 수월하게 인식된다. 반대로 세나토리오 궁전에서 도로방향의 난간을 바라보면, 광장 양측면의 벽면들이 점차적으로 더욱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시소점이 앞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광장 양측면의 벽면들이 시각적으로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지면서 도시방향의 난간부분까지의 광장의 세로길이가 실제보다 더욱 길게 인식하게 된다.

와 같은 형태의 광장은 원근법에 의한 광장의 깊이감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역원근법을 이용하여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도로방향의 난간부분으로부터 세나토리오 궁전을 향해 시각적인 역 투시도법으로 점점 넓어지게 계획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깊이의 작은 광장계획을 위한 의도이었다. 또한, 광장 양측면에 배치된 2개의 궁전에 의해 벌어진 형태의 광장계획은 도로방향의 난간부분으로부터 세나토리오 궁전 방향을 보았을 때, 광장 양측의 폐쇄된 건물 벽체에 의해서 궁전 정면방향으로의 시각적인 집중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 전체적으로 무대 양측의 날개는 2개의 건물 입면이 되면서 무대배경은 세나토리오 궁전의 정면이 되는 극장과 같은 개념에서 구성되었으며, 특히 사각형 형태의 틀 내에서 보여지는 세나토리오 궁전 정면을 보다 중요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향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닫혀진 광장으로부터 광장 모서리부분의 건물사이를 서로 분절시켜 배치되었기 때문에, 광장의 위요감 및 영역성이 약해질 수도 있다.²²⁾ 그러나 세나토리오 궁전과 양측면 건물들 사이를 조금 열려지게 하여 세나토리오 궁전 뒷부분에 펼쳐지는 로만 포럼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도 한다. 반대로 동쪽의 세나토리오 궁전에서 도로방향으로 보았을 때에는 점점 좁아지는 광장의 형태에 의해 광장의 에워싸움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전통적으로 서구의 대부분의 광장들은 통로(Path) 및 결절점(Node)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22) 광장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광장의 위요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광장의 모서리가 개방될수록 위요감이 감소되고, 모서리의 건물이나 구조물 등에 의해 완전하게 처리될 경우에는 위요감이 높아지게 된다.

망과 연결되어 도로와 건물들에 의한 둘러싸임에 의해 폐쇄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캠피돌리오 광장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혹은 중세시대 도시들의 중심지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형성된 신전 및 교회의 광장과 같이, 도시 중심지의 상부에 위치하게 되었다. 캠피돌리오 광장은 지형의 고저차이로 인해 영역구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광장이 도로로부터 경사진 계단에 의해 진입되어야 하고, 또한 도시방향으로 개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면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서 3개 건물에 의한 둘러싸임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서구 광장의 폐쇄성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양측면의 2개 건물의 단부를 광장의 열려진 도시방향으로 좁혀서 배치하였으며, 열려진 경계부분에는 낮은 난간과 조각상들을 배치하여 어느 정도 광장의 폐쇄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던 계획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다리꼴 유형의 광장은 광장 전면에 있는 건물의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축으로부터 대칭에 의한 광장과 건물들의 배치에 의해 이전의 로셀리노 B.Rossellino(1409-64)가 1459년에 계획한 피엔짜 Pienza에 있는 피엔짜 대성당의 광장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캠피돌리오 광장은 피엔짜의 광장보다 배치축에 의한 좌·우 대칭성이 양측에 배치된 같은 크기와 형태의 건물에 의해 균형 있고 집중적으로 통합되어 구성되었다. 이후에 바로크시대에는 베르니니 G.L.Bernini(1598-1680)가 1656년에 계획한 산 피에트로교회 정면과 직접적으로 면하고 있으면서 양측면에는 높은 벽에 의해 둘러싸인 역사다리꼴 형태의 광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³⁾

23) J. S. Ackerman, Op. Cit., p. 51; Jacob Burckhardt, Op. Cit., p. 170; J. S. Ackerman,

2-4. 광장 중심부분의 타원형 형태 계획에 관한 도면분석

사다리꼴 형태 광장에 삽입된 타원형은 중앙부분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경사진 불룩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²⁴⁾ 외곽에는 3개의 단으로 둘러싸여 있다. 중앙부분으로 약간 솟아오른 정점에는 1539년에 미켈란젤로가 기마상을 배치하기 위해 디자인한 대좌(臺座) 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마상이 시각적인 초점에 배치되어 있다.²⁵⁾ 위와 같은 기마상의 배치는 상징적인 요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경사진 계단을 오르고 광장 난간에 도달한 이후에 광장으로의 시선과 동선을 끌어 드리는 강한 흡인력을 이끌기 위함이었다. (그림 9)

이와 같은 사다리꼴 광장 내부에 타원형의 위치 및 크기와 형태는 기본적으로 광장의 배



<그림 9> 캠피돌리오 광장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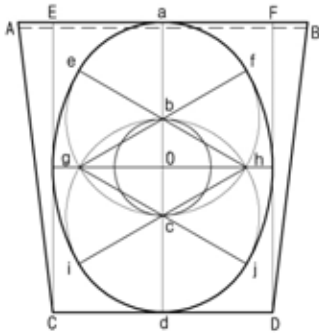
(출처: Akinori Kato, Plazas of Southern Europe, Process Architecture Publishing Co., 1990, p. 89)

Distance Points, London, 1990, p. 386.

24) 타원형 중앙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은 38.04m이며, 타원형 장변과 단변부분에 가장 낮은 부분은 37.39m이기 때문에, 높이의 차는 0.65m이다. 그러므로 타원형의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장변과 단변부분의 기울기는 각각 약 1/60으로 형성되어 있다. Comune di Roma, Op. Cit., 에서 캠피돌리오 언덕부분에 대한 1/1000 도면 참조.

25) 캠피돌리오 언덕 광장의 공간은 광장을 향한 경사진 계단 및 광장에서의 수평방향의 진입과 기마상 주변으로의 전개로서 이루어졌으며, 기둥이나 탑과 같은 수직적인 선형요소와 같이, 기마상의 수직방향으로의 상승이라는 구성체계와 요소로 되어 있다.

치측인 장축과 단축 및 대각선 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광장 양측에 콘서트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사이에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정사각형 내부에 원을 삽입하는 기하학적인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사다리꼴 형태 내부에 타원형을 삽입하기 위해 광장 양측의 2개의 궁전을 중심으로 사각형 형태의 틀(EFCD)을 설정하여 타원형을 삽입하는 구성체계로서 형성되었다. (그림 4) 타원형의 작도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캄피도리오 광장의 타원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0)



<그림 10> 타원형의 작도 (저자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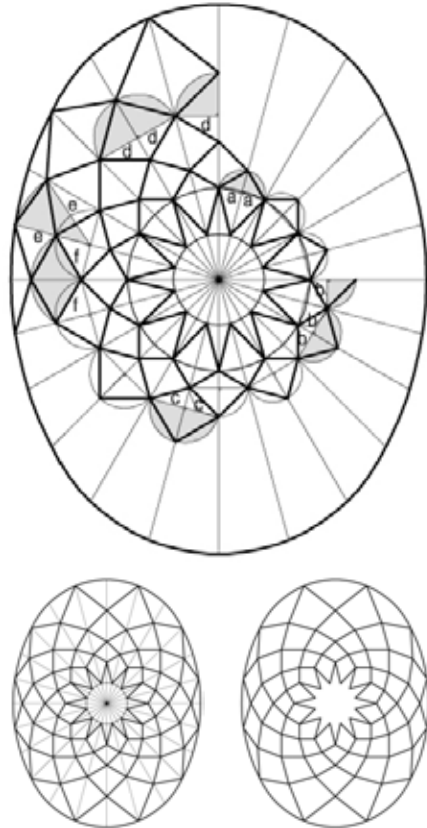
① 건물들에 의해 형성되는 사다리꼴(ABCD)을 구성한 이후에, 캄피도리오 언덕의 배치측인 장축(a-d)과 단축(h-g)을 그린다.

② 장축의 선상에서 사다리꼴의 높이가 되는 선분의 길이를 3등분(a, b, c, d) 한다. 다음에는 a-b와 c-d를 반지름으로 하는 2개의 원을 그린다. 2개의 원이 서로 교차하는 g와 h에서 원의 중심인 b와 c를 중심으로 서로의 대각선인 f-b-g, g-c-j와 e-b-h, h-c-i을 각각 연결한다.

③ g와 h를 중심으로 f-g, g-j와 e-h, h-i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를 각각 그리게 되면, 장축이 54m와 단축이 40.8m가 되는 타원형이 구성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타원형의 작도법에 의해 건축역사연구 제18권 6호 통권67호 2009년 12월

구성된 타원형 내부에 12개 방향의 방사형으로 구성된 별모양의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도되었다. (그림 11)



<그림 11 - I, II, III > 타원형 내부 디자인의 작도 (저자 도해)

① 타원형의 중심 O를 중심으로 타원 장축 길이의 1/3만큼을 지름(그림 10, b-c)으로 하는 원을 작도한 이후에, 다시 타원형의 중심 O를 중심으로 이미 그린 원의 지름 1/2만큼의 지름으로 하는 원을 작도한다.

② 별모양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 위에서 타원형의 중심 O를 중심으로 작도된 2개의 원을 장축과 단축을 중심으로 각각 12등분(30°)과 24등분(15°)을 한다. 다음에는 내부와 외부 원의 분할된 지점을 서로 연결하여 타원형 내부 디자인의 핵의 역할을 하는 12방향의

기하학적인 별모양을 작도한다.

③ 12등분 선상에 별의 첨단부분 사이를 직선으로 서로 연결한다. 이러한 직선과 각 등분선이 수직으로 서로 교차하게 되며, 교차점을 원의 중심으로 a길이만큼의 반지름으로 하는 12개의 반원을 작도한다.

④ 작도된 반원의 첨단부분 사이를 위의 3번과 같이 교차점을 원의 중심으로 b길이만큼의 반지름으로 하는 12개의 반원을 작도한다. 이후에 연속적으로 교차점을 원의 중심으로 c 길이만큼의 반지름으로 하는 12개의 반원을 작도한다.

⑤ 3개의 반원(a, b, c)을 작도 이후에는 타원형의 장축과 단축을 중심으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작도하여야 하는데, 장축방향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교차점을 원의 중심으로 d길이만큼의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좌·우를 중심으로 3개씩 작도한다.

⑥ 단축방향에는 2가지의 방법으로 작도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는 b길이만큼의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첨단부분 사이에서의 중심점에서 타원형의 외곽선까지의 길이 e만큼인 40°의 부채꼴을 작도한다. 두 번째는 b길이만큼의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첨단부분에서 길이 f만큼인 120°의 부채꼴을 작도한다.

⑦ 위와 같은 작도가 완료되면, 각각의 반원과 각 등분선의 교점을 연결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24개의 축선을 삭제하면 타원형 내부 디자인이 완성된다.

타원형의 내부를 분절하는 별모양의 선의 형태로 구성된 디자인 패턴은 광장 전체에 파문을 그리듯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²⁶⁾ 이러한 계획은 미켈란젤로에 의해 이루어



<그림 12> 옴팔로스, 헬레니즘-로마시대 작품 (출처: G. Themelis, Delphi, Ekdotike Athenon, 1984, 그림 29)

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광장의 타원형 부분의 마감은 1940년에 완성되었다. 이와 같은 계획은 기본적으로 기마상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장축과 단축을 기본으로 하여 방사선 형태로 나누어져 정확하게 12개 방향으로 구성되었다.²⁷⁾ 특히, 기마상을 중심으로 바닥에 12개 방향으로 나누어진 띠 장식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 광장에서의 공간적인 발산과 수렴이 동시에 잘 부합되고 있다. 또한 광장의 중심성을 강조하기도 하며, 중앙부분으로 약간 경사

관련된 범 우주적인 상징으로 표현되어 특별한 장소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림 12) J. S. Ackerman, Op. Cit., pp. 65-66; C. Norberg-Schultz, Op. Cit., p. 272; L. Murray, Op. Cit., p. 179; G. C. Argan - B. Contardi, Op. Cit., p. 261; 비난트 클라센, Op. Cit., p. 155.

27) 12개 방향으로 나누어진 방사선 형태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동근 천정 내부에 상징적으로 이용되었던 황도 12궁(黃道 十二宮)에 의해 고대에 많이 이용된 표현체계이다. 교회건축에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주위에 12사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로마시대에 비트비우스는 극장계획에서 원형의 오케스트라 부분을 4개의 정삼각형이 삽입되어 12개 방향으로 나누어진 별모양의 형태로 계획하였다. 중세시대에는 12라는 숫자의 의미를 천문학과 점성술과 함께, 달의 순환과도 연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0세기에 세빌리아의 성 이시도로에 의해 작성된 필사본인 De Rerum Natura의 우주론의 체계라는 그림에서 캄피돌리오 언덕 광장의 타원형 내부의 디자인과 유사한 중앙의 원형을 중심으로 12개 방향으로 확산된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림 13) Vitruvius, Op. Cit., 제5서, 제6장; J. S. Ackerman, Op. Cit., pp. 64-66; G. C. Argan - B. Contardi, Op. Cit., p. 217; 문수일, Op. Cit., p. 69, 그림 p. 70.

26) 볼록한 타원형 내부에 방사형 별모양의 기하학적으로 계획된 디자인은 지구의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면서, 타원형은 세계의 중심(Caput Mundi)을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또는 그리스 델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계의 배꼽을 상징하는 옴팔로스 Omphalos와



<그림 13> 우주론의 체계, 10세기, 세빌리아의 이시도로에 의한 그림
(출처: J. S. Ackerman, Distance Points, London, 1990, 그림 13. 16)

진 부분을 시각적으로 평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한편으로는 광장 둘레의 기능과 형태 및 크기가 서로 다른 각각의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광장 바닥의 재료 및 그러한 재료의 질감과 디자인 패턴은 광장의 구성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²⁸⁾ 광장 중앙부분의 타원형은 무엇보다도 바닥의 디자인 패턴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광장의 중심성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5. 건물에 대한 특성

(1) 세나토리오 궁전

세나토리오 궁전은 원로원 의원들의 집회장소로서 이용되었던 건물이었으며, 현재는 로마시장의 집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28) 캄피돌리오 언덕 광장의 전체적인 바닥재로는 흑색의 절판암으로 마감되었지만, 타원형과 내부에 선의 형태로 디자인된 방사형의 별모양은 흰색의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석재에 의한 색에 대비에 의해 디자인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8개의 띠가 방사선 방향으로 디자인된 부채꼴 형태의 시에나의 캄포광장과 베르니니가 계획한 로마에 산 피에트로 교회의 타원형 광장에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8개 방향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세나토리오 궁전은 이태리 중북부의 시청사와 같은 양식으로서 건물 모서리에는 탑이 구성되었고, 중앙에는 높은 종탑이 세워져 있었다. (그림 1, 7) 이러한 건물을 미켈란젤로는 기존의 건물의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계획된 정면구성을 하였으며, 지아코모 델라 포르타와 지로라모 라이날디 Gilolamo Rainaldi (1570-1655)에 의해 1598년과 1612년 사이에 완성되었다.²⁹⁾ (그림 14)



<그림 14> 세나토리오 궁전의 정면
(출처: G. C. Argan - B. Contardi, Michelangelo architetto, Electa, 1990, 그림 321)

세나토리오 궁전은 축선상의 장축을 중심으로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선상에 전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은 길게 형성된 지붕선이 수평성을 강조하면서 세나토리오 궁전보다 낮게 구성되어 세나토리오 궁전이 극장의 무대와 같이 광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³⁰⁾ 그리고 도

29) 교황 율리우스 Julius III세(재임기간 1550-1555)부터 교황 피우스 Pius IV세(재임기간 1559-1565) 때까지 캄피돌리오 언덕의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나토리오 궁전의 전면 계단은 미켈란젤로에 의해 이미 완성되었다. 그리고 세나토리오 궁전이 보수되었고, 기마상의 대좌제작과 상이 세워졌으며, 광장 서쪽의 난간이 건설되었다. P. Zucker, Op. Cit., p. 147; L.H. Heydenreich-W.Lotz, Op. Cit., p. 250; G. C. Argan - B. Contardi, Op. Cit., p. 257; 문수일, Op. Cit., pp. 63-64; Akinori Kato, Op. Cit., p. 88.

30) 세나토리오 궁전의 높이는 27.4m이며,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 높이는 20.1m이다. P. Zucker, Op. Cit., p. 147; 조혜경-이영근, 도시광장의 특성 연

시방향에서 경사진 계단을 올라온 이후에, 3개의 건물로 둘러싸인 광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으로부터 세나토리오 궁전까지의 거리(D)와 궁전 높이(H)의 관계를 살펴보면, 적절한 D/H 비와 양각을 유지하고 있다.³¹⁾

세나토리오 궁전은 전체적으로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궁전 정면의 1층 벽면은 돌로 마감되어 견고하고 거대한 건물의 기반부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건물은 광장의 중심 건물로서 다른 건물들 보다 높게 구성되어 건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³²⁾ 중앙부분에는 분수를 중심으로 이중의 계단이 서로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 계단 상부에 구성된 발코니는 광장 및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뿐만 아니라, 광장의 경계인 난간을 넘어 도시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일종의 전망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부에는 2개의 층인 2층과 3층이 일치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벽면은 거대한 오더에 의해 수직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되어 있으며, 거대한 오더사이에는 장식된 틀에 의한 개구부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건물의 정면계획은 거대한 오더가 건물의 2개 층을 수직적으로 서로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기둥에 의한 강한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거대한 오더는 세나토리오 궁전의 정면뿐

만 아니라, 양측의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의 건물이 똑같이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광장 주위의 3개 건물은 입면 구성요소의 거대한 오더에 의해 정면에서의 강한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세나토리오 궁전 상부에 있는 사각형 형태의 높은 시계탑은 건물 전면 중앙부분에 장축의 축선상의 중심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되었다.³³⁾ 이와 같은 시계탑의 수직적인 요소는 언덕을 진입하는 경사진 계단으로부터 광장의 평면계획의 수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광장 전면에 있는 세나토리오 궁전의 입면계획에서 일직선상의 장축방향의 전체적인 축을 형성하기 위한 구성체계와 요소로서 계획되었다. 또한, 시계탑은 광장의 먼 곳으로부터 광장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표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

콘세르바토리 궁전은 세나토리오 궁전의 부속건물로서 원로원들의 국정활동을 보조하는 판사나 관리들의 업무를 위한 건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전면 1층은 열주회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1) 이러한 건물을 미켈란젤로는 1563년에 기존 건물의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계획된 정면구성을 하였으며, 미켈란젤로의 요구에 의해 1584년에 델라 포르타가 완성하였다. (그림 15) 그리고 콘세르바토리 궁전 맞은편에 같은 크기와 형태로서 새롭게 계획된 누오보 궁전은 1562년 미켈란젤로에 의해 계획되어 지로라모 라이날디와 카를로 라이날디 Carlo Rainaldi(1611-91)에 의해 1603년에 시작하여 1654년에 완성되었으

구: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충북대 논문집, 제8집, 1996, p. 323.

31) 세나토리오 궁전까지의 거리(D)는 약 79m이며, 궁전 높이(H)는 27.4m이다. 따라서 D/H의 관계를 살펴보면, D/H=약 2.9 비례와 양각은 약 19° 정도이기 때문에, 배경과 대상이 같게 보이면서 시야에 중심건물이 대부분 점유하고, 보여지는 건물의 모습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림 4, 주 31), P. Zucker, Op. Cit., p. 7; 조혜경-이영근, Op. Cit., p. 319, <표 2> D/H이론에 관한 기존 연구 참조.

32) 주) 16 참조.

33) 이러한 시계탑은 1583년에 마르티노 롱기 Martino Longhi(?-1591)에 의해 증축되었다. L.H. Heydenreich-W.Lotz, Op. Cit., p. 250; L. Murray, Op. Cit., p. 178; 문수일, Op. Cit., p. 64.



<그림 15> 콘세르바토리 궁전의 정면

(출처: G. C. Argan - B. Contardi, Michelangelo architetto, Electa, 1990, 그림 327)

며,³⁴⁾ 현재는 2개의 건물들은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궁전들의 정면계획은 거대하고 높은 주초 상부에 8개의 거대한 코린티안 오더가 1층과 2층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2개의 층에 일체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오더는 상층부를 장식적으로 두르고 있는 수평적인 구성요소인 거대한 코니스를 수직적으로 지지하는 구성요소로서 계획되었다.³⁵⁾ 열린 1층과는 대조적인 2층의 폐쇄적으로 구성된 벽면은 거대한 오더에 의해 수직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되어 있으며, 거대한 오더사이에는 개구부들이 구성되어 있다.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의 정면계획은 가로축의 건물길이에 비해 세로축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³⁶⁾ 정

면을 거대한 오더에 의해 수직적으로 분할하여 수직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개구부의 구성을 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의 정면을 각각 바라볼 수 있는 중앙부분으로부터 궁전까지의 평균거리(D)와 궁전 높이(H)의 관계를 살펴보면, 적절한 D/H 비와 양각을 유지하고 있다.³⁷⁾

1층은 거대한 오더와 오더사이에는 작은 원기둥의 이오닉 오더가 중간층의 작은 코니스를 지지하면서 거대한 오더의 가까이 배치되어 열린 열주 회랑을 구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요소는 단순한 사각형 형태의 입면을 그리드로 분절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³⁸⁾ 열주회랑의 가로길이는 정면 전체의 길이만큼 배당되며, 세로길이는 평면의 1/2 폭만큼 구성되었다. 한편, 열주회랑은 광장과 경계를 이루면서 건물 중앙부분의 출입구를 중심으로 현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³⁹⁾ 광장의 모든 부분에서 진출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장에서부터 건물의 접근성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⁴⁰⁾ 그리고 열주

1968, p. 175.

37)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의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중앙부분으로부터 궁전까지의 평균거리(D)는 47.4m이며, 궁전 높이(H)는 20.1m이다. 따라서 D/H의 관계를 살펴보면, D/H=약 2.4 비례와 양각은 약 23°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건물 전체를 인식하는 동시에 디자인을 볼 수 있으며, 외부의 공간감이 쾌적하게 느끼게 된다. 그림 4, 주) 31, P. Zucker, Op. Cit., p. 7; 조혜경-이영근, Op. Cit., p. 319, <표 2> D/H이론에 관한 기존 연구 참조.

38) L. Murray, Op. Cit., p. 177.

39) 그림 4의 단축에서 출입구 부분에 해당되는 d와 e 참조.

40)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의 회랑과 같이, 고대 로마시대의 포럼에 배치되어 있었던 건물들의 1층은 대체로 회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알베르티는 고대 로마시대의 회랑에 대한 사례를 통해 회랑을 구성하기 위한 체계를 서술하였으며, 르네상스시대에 광장에 면하고 있는 건물의 회랑은 최초로 플로렌스에 브르넬레스키가 1424년에 계획한 오스페달레 델

34) P. Zucker, Op. Cit., p. 146; L.H. Heydenreich-W.Lotz, Op. Cit., p. 250; L. Murray, Op. Cit., p. 176; 문수일, Op. Cit., pp. 63-64; Akinori Kato, Op. Cit., p. 88.

35) 세나토리오 궁전과 콘세르바토리 궁전 및 누오보 궁전에서의 거대한 오더는 르네상스시대에 로마에서 미켈란젤로에 의해 세속적인 건물에 최초로 이용되었으며, 교회건축에서는 성 베드로교회에 미켈란젤로가 1546-47년에 계획한 부분인 Apse부분에 거대하고 높은 코린티안 오더로 구성되었다. J. S. Ackerman, Op. Cit., pp. 58-59; L.H. Heydenreich-W.Lotz, Op. Cit., pp. 250-251.

36)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의 정면에서 가로길이(54m), 세로길이(20.1m)의 비는 약 2.7:1이다. 알베르티를 중심으로한 르네상스시대의 건축가들은 이상적인 건물정면의 비례체계를 1:√2 혹은 황금비로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의 정면은 건물길이에 비해 높이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주) 31, L. Benevolo, Storia dell'Architettura del Rinascimento Vol. I, Lateza,

회랑은 광장의 배경이 되는 세나토리오 궁전을 향한 동선을 가속시키기도 하고, 또한 둘러싸인 공간의 정적인 균형을 연속적인 반복에 의해 강조하기도 한다.

3. 결론

1) 캠피돌리오 언덕의 계획은 급경사진 지형, 불규칙한 부지형태, 서로 다른 크기와 형태의 건물이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치되고 통합된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존 건물입면의 변경, 기존 건물의 새로운 배치계획을 위한 활용, 기존 건물과 새롭게 계획한 건물과의 연계에 의한 사다리꼴 형태의 광장구성으로부터 방치된 부지를 새롭게 변형시켰다. 특히, 역사사다리꼴 형태에 의한 역원근법의 효과를 설정하기 위해 기존의 삼각형 형태 부지와 건물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2) 캠피돌리오 언덕의 배치계획의 개념은 바로크시대의 도시계획 특징과 같은 도로-진입계단-광장-광장내부의 상징물-건물이라는 과정과 경사진 계단을 통한 도시 가로와의 연계라는 르네상스시대 이후에 바로크시대의 요구사항을 절충시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사다리꼴 형태의 광장을 중심으로 르네상스시대의 정적인 공간과 사다리꼴 형태 내부에 삽입된 타원형과 별모양의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바로크시대의 동적인 공간의 특징 있는 계획이 비교되어 전개되었다.

3) 캠피돌리오 언덕의 단면계획은 기존의 대지형태를 이용하면서 주축인 동-서 방향을 중심으로 도로로부터 완만한 각도의 경사진 계단을 통해 광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계획되

었으며, 광장의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경사진 볼록한 형태로서 구성되었다. 중앙부분으로 약간 솟아오른 정점에는 높은 대좌 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마상이 시각적인 초점에 배치되었으며, 축의 절정 및 배경이 되는 부분에는 양측면의 궁전들보다 높은 세나토리오 궁전을 배치하였다.

4) 캠피돌리오 언덕의 계획은 기존의 세나토리오 궁전을 중심으로의 축과 완전한 균형에 의한 건물배치, 건물배치에 의해 형성된 역사사다리꼴 형태의 광장구성, 그러한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에 의한 중앙집중적인 배치와 상호 연관되어 역사사다리꼴 형태의 광장에 의한 역원근법에 의해 관찰자의 시각적인 거리를 단축시키면서 구성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캠피돌리오 언덕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중심적인 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다리꼴 형태의 광장과 함께, 가장 중앙부분에 위치한 기마상을 포함한 타원형 내부에 기하학적인 별모양의 디자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5) 캠피돌리오 언덕의 계획에서 3개의 궁전은 사다리꼴 형태 광장을 중심으로 3면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무대 양측의 날개는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의 정면이 되고, 무대배경은 2개의 궁전보다 높은 세나토리오 궁전의 정면이 되는 극장과 같은 개념에서 구성되었다. 이러한 궁전들의 정면계획은 코니스의 수평적인 구성요소와 거대한 오더의 수직적인 구성요소로서 통일된 공간을 위한 전체적인 일체감을 주었으며, 콘세르바토리 궁전과 누오보 궁전에서는 열주회랑에 의해 건물과 광장이 서로 상호 연관된 구성체계로서 이루어졌다.

6) 캠피돌리오 언덕의 계획은 로마의 발생지인 캠피돌리오 언덕을 중심으로 고대 로마

리 인노첸티 Ospedale degli Innocenti에서 시작되었다. Vitruvius, Op. Cit., 제5서, 제1장, 2절; J. S. Ackerman, Op. Cit., p. 57.

시대의 수도로서의 로마, 그리스도교의 수도로서의 로마, 그리고 시민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에 대한 역사성, 장소성, 상징성의 의미와 역할을 나타내었다. 특히, 사다리꼴 광장의 중심부분에 타원형 형태의 내부에 기마상을 중심으로 기하학적인 방사형의 별모양인 대리석 무늬가 장식된 부분은 세계의 중심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구성되었다.

<참고문헌>

1. Vitruvius, 건축 10서, 오덕성 역, 기문당, 1987,
2. 문수일, 미켈란젤로의 로마, 공간출판사, 1992
3. 비난트 클라센, 서양건축사, 심우갑-조희철 옮김, 대우출판사, 1995.
4. 조혜경-이영근, 도시광장의 특성 연구: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충북대 논문집, 제 8집, 1996, pp. 309-326.
5. R. Wittkower, 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The Warburg Institute University of London, 1949
6. P. Zucker, Town and Square, MIT, 1959.
7. J. S. Ackerman, L'architettura di Michelangelo, Einaudi, 1968.
8. L. Benevolo, Storia dell'Architettura del Rinascimento Vol. I, Lateza, 1968
9. Enciclopedia Europa, "Roma", Vol. IX, 1970.
10. L.H. Heydenreich-W.Lotz, Architecture in Italy 1400 to 1600, Penguin, 1974.
11. C. Norberg-Schultz,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Praeger, 1975.
12. P. Murray, Architettura del Rinascimento, Electa, 1978.
13. L. F. dell'Orto, Roma Antica, Arno e

Tevere, 1982.

14. L. Franchi dell'Orto, Roma Antica, Arno e Tevere, 1982.
15. G. Themelis, Delphi, Ekdotike Athenon, 1984.
16. Jacob Burckhardt, The Architecture of the Italian Renaissance(1867), Penguin Books, 1987.
17. L. Murray, Michelangelo, Rusconi, 1988
18. Akinori Kato, Plazas of Southern Europe, Process Architecture Publishing Co., 1990.
19. G. C. Argan-B. Contardi, Michelangelo architetto, Electa, 1990.
20. J. S. Ackerman, Distance Points, London, 1990.
21. Comune di Roma, Atlante di Roma, Marsilio, 1991.
22. Henry A. Millon, Italian Renaissance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1994.

접수(2009. 10. 15)

수정(1차:2009. 12. 7, 2차:2009. 12. 22)

게재확정(2009. 12. 2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ampidoglio Hill Plan by Michelangelo

Kim, Seok Man

(Prof.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ampidoglio hill plan by Michelangelo.

1. The plan of the Campidoglio hill is composed of the harmonized and united space, in spite of the existing conditions of a steep flight of land, a irregular site shape, a building of each other different dimension and form. And it is newly changed by site left through the modification of existing building elevation, utilization of existing building for new planning, connection with existing building and newly planned building from plaza composition of trapezoid form.

2. The concept of planning of the Campidoglio hill is planned by compromising for requirements of Baroque after Renaissance which urban planning characteristics of Baroque is as the relation with urban street through a inclined stairs and process such as street - approach stairs - plaza - symbol of inside plaza - building.

3. The section plan of the Campidoglio hill is planned by which can be easily approached to the plaza through the inclined stairs of gentle angle from street at the center east-west direction of main axis such as main axis, utilizing the existing site shape, and it is composed of the convex shape ascending gently at the center central part of the plaza.

4. The plan of the Campidoglio hill is composed of the elation with the axis of existing Senatorio palace, building planning of perfect balance, plaza composition of reversed trapezoid form by building planning, central concentrated planning of buildings surrounding plaza.

5. The three palace of the plan of the Campidoglio hill is composed of the concept as theater which the stage background forms the front elevation of Senatorio palace higher two palace and the wings of either side of stage form the front elevation of Conservatori palace and Nuovo palace, surrounding three palace elevation around plaza of trapezoid form.

Keywords : Renaissance, Michelangelo, Campidoglio Hill, Plaza, Palace
